

산 자 부 , 주 력 산 업 하 반 기 성 장 활 력 회 복 전 망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조선,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11개 주력산업에 대한 '올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생산증가세를 견인하던 수출이 주춤하고 소비·투자 등 내수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면서 산업생산이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됐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산업의 성장 여건 및 생산 활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조선·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활발한 생산활동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최적화와 신흥시장 성장에 따른 수출호조에 지속적으로 생산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도 내수증가세가 이어지고 대(對)EU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생산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주요 산업의 활력회복은 내수회복 및 수출증가세의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 활동 여건개선과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원화강세 및 고유가 지속 등 수출여건의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업종의 수출증가세 둔화에 대비한 글로벌시장 관리 및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강화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외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 통 부 , ' IT기 반 용 합 기 술 발 전 전 략 ' 워 크 슈 개 최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8월 25일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관련부처, 업계, 학계, 연구계 등 IT, BT, NT 전문가가 참여하는 'IT기반 융합기술 발전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통부는 지난 5월 '융합기술 발전전략 수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포항공대 박찬모 총장)'를 구성하여 융합기술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해 왔다.

추진위원회에는 약 7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융합기술 전략분야 도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전략을 연구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IT생산 240조원, IT수출 747억불을 달성하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등 자타가 인정하는 IT강국으로 성장하면서 IT기술과 시장이 점차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이번에 융합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아울러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로 대표되는 BT분야와 나노기술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의 주력산업인 IT산업을 새로운 BT, NT와 융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통부는 IT-BT-NT 융합기술이 IT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다가오는 고령사회와 건강과 환경문제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융합기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자 또는 분자 수준에서 조작이 가능한 NT기술이 IT기술과 융합되게 되면, 기존 IT소재·부품·시스템의 성능과 이동성이 크게 향상되고 획기적인 소형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이 생명체 현상을 다루는 바이오 기술과 융합되게 되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IT-BT 융합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앞으로 다가 올 IT-BT-NT 융합시대를 대비하여 IT기술과 인프라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 발전전략이 효과적인 국가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오늘 워크숍을 통해 관련 부처, 학계, 업계, 연구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IT기반 융합기술 발전전략(06~15)'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전략기술 개발, 산업화 촉진, 초기시장 창출 등 융합기술 발전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중 기 청 , 올 11월 대 · 중 소 기 업 협 력 박 람 회 개 최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비즈니스 알선을 통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5 대·중소기업 협력 박람회(가칭)'를 개최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만이 살 길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잠정)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국국제 전시장(잠정)에서 열린다.

행사는 ▲대기업 협력업체 발굴과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대기업·유통업체·공공기관·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 간의 '구매상담회(Match-making Fair)' ▲협력우수기업의 협력사례와 신기술 및 아이디어 제품을 전시·판매·홍보하는 '우수 대·중소기업 전시·홍보관' ▲대·중소기업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중소기업인, 유관기관 및 학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대·중소기업 협력증진 방안 및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대·중소기업 협력포럼'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설명회, 정부기관 조달절차 설명회, 외국기업 선진사례 발표회 등이 계획되어 있다.

•참가신청 및 문의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02-785-9950~1) 중소기업 유통센터 (02-6678-9321)

산단공, 개성공단에 중소기업 위한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 건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철두)은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 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섬유, 봉제 등 국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들어설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한다.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은 업체당 100평을 기준으로 40여 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6000평 규모의 공장시설과 1100평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를 비롯, 교육훈련시설, 회의실, 운동시설, 식당 및 매점 등 다양한 생산지원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조업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 복지시설 등 시설의 공동이용을 가능하도록 해 상당한 경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입주는 국내의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해외진출이 불가피한 섬유, 봉제업체 등 노동집약 업종을 우선 유치시킬 계획으로, 그동안 투자여력이 부족해 대북 진출을 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체의 초기 투자비 경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되면 중·장기적으로 기존 입주기업과의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을 통한 개성공단의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조기 건립을 위해 오는 9월 12일 입주선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건축설계에 착수하여 200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 원 추가 지원

부산시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육성자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초에 기업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운전자금 3500억원, 육성자금 1000억원 등 45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여 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조기 소진은 ▲지난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형 공장인 '벽산디지털밸리' 입주자금 300억원 지원 ▲최근 제조업의 매출 회복 기대심리로 인한 기업들의 시설투자 급증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자금의 조기소진(4월) 등으로 인해 육성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추가 자금 500억원으로 100여 개의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장증설 및 기계구입, 지사과학산업단지 및 정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자금난 완화 및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관련조합 및 단체 중에서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 및 영상산업, 벤처기업이며 지원금액은 사업별 13억원(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이내, 벤처자금의 경우 시설자금 4억원, 운전자금 1억원, 임대료 1억원 이내, 지역특화지원 사업은 시설자금 4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벤처리더스클럽 정기모임 개최

벤처리더스클럽(공동대표 변대규 휴맥스 대표·김한섭 KTB네트워크 대표)은 지난 8월 24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벤처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지디자인건설링 이종선 대표가 'PI & Communication Skills'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제품에 있어 강력한 브랜드가 살아남듯이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CEO가 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성공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하며, 손과 발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
사
·
사
업

NEWS

2005 벤처디자인상 선정

선정 목적

중소·벤처기업들의 우수한 산업디자인 상품을 선정해 홍보함으로써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 중소기업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상품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디자인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 및 고취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촉진한다.

주최 및 주관 기관

- 주최 : 한국디자인진흥원, YTN, 문화일보
- 후원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

- 선정대상 : 국내·외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 예정품으로서 디자인을 통하여 가치창출이 향상된 상품(Working Mock-up 가능)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사의 상품과 외국사 상품은 제외
- 신청자격 : 선정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자, 디자인개발자, 판매자 등

선정 일정

- 접수 : 2005년 10월 5일(수)~10월 6일(목)
- 1차심사결과 발표(예정) : 2005년 10월 12일(수) (디자인진흥원홈페이지 공고)
- 2차심사결과 발표(예정) : 2005년 10월 19일(수) (디자인진흥원홈페이지 공고)
- 시상식(예정) : 2005년 10월 28일(금)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 컨벤션 홀)

문의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 전시사업팀 031-780-2165(www.designdb.com)

여
성
벤처
협회

NEWS

한국여성벤처협회 창립 7주년 기념 행사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창립 7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타 기업의 모범이 되고,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우수여성벤처기업을 선정, 유공자를 표창한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벤처협회 초대회장인 정희자 회장, 2·3대 회장인 이영남 회장이 참석하며, '모태펀드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국벤처투자 권성철 대표의 주제 강연도 마련된다.

중부권, '대기업 눈독' IT 첨단산업 주역으로 거듭나
 충남은 천안 및 아산을 중심으로 IT산업의 생산거점을 육성하며,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의 중심에 위치한 천안·아산 산업단지를 참여정부 성장 동력엔진의 한 축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복안이다. 충북은 '바이오토피아'란 슬로건을 내세워 오창·오송을 핵심 지역으로 바이오(BT)와 바이오정보산업(BIT)의 허브로 조성해 가는 기능분담을 모색하고 있다. 생명과학과 바이오산업을 축으로 차세대 반도체, 이동통신, 2차전지 등 이른바 첨단 산업들을 확산·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국가 IT산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276만평 규모에 일반 공단 80개 기업 유치계획 중 현재 6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8개 업체는 공장을 건축 중이다. 벤처공단도 23개 기업 유치계획 중 21개가 가동에 돌입했다. 오창단지는 2만여명 고용효과가 예상되며 공단이 마무리되는 2010년경에는 연간 3조 1970억원의 산업생산과 연 3000억원의 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오송단지가 완성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6조 600여억원, 소득유발효과 9300여억원에 3만 8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되면서 충북을 넘어 국가의 산업지도를 바꿀 정도의 매머드급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역은 대덕연구단지의 전문지식·인력의 집적기반으로 첨단연구기관과 관련 인프라가 국내 최고 수준이다. 대덕R&D특구 지정으로 BT-IT 산업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벤처캐피털 등 기업지원 서비스 기능으로 특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대덕은 벤처기업 및 연구소 기업의 증가로 연 5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오는 2015년 특구 내 기업 매출액 30조원, 기술료수입 5000억원, 국제특허등록 1만 6000건, 외국연구기관 20개, 나스닥 상장기업이 20개에 달하는 등 비약적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북과 대덕을 아우르는 중부권은 고속철도 건설 등 광역교통망 개선, 첨단 과학기술 및 산업기반과의 연계용이, 행정수도 이전, 환황해권의 중요성 부각 등 입지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다.

VD Scrap



▲ 2005년 8월 24일 전자신문 1, 3면
 2002년 이후 최대 규모인 6200여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조성됨에 따라, 자금줄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벤처투자가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한 기사.



▲ 2005년 8월 25일 서울경제 2면
 오는 9월 초 벤처캐피털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 현지 벤처캐피털업체들과 중국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조성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벤처캐피털들이 속속 중국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